

뉴욕장신 뉴스레터



제 3호

2014년 4월 20일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

KPCA,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NY)

277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

Tel : 201-660-7778 Fax : 201-660-7779 홈페이지 <http://www.nypts.org>

학장 유재도 박사 / 학감 이기백 박사 / 총무처장 임선순 목사

학장의 글

“하나님의 은혜”



학장 유재도 박사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처음에 잠깐 살았던 곳이 뉴욕 브루클린의 브라이튼 비치(Brighton Beach) 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그곳에 러시아에서 이민을 온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31년 전에 그곳은 지금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전철이 지나가는 길에서 두 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 6층 짜리 아파트 구석방에서 우리 가족들은 모여 살았습니다. 100미터만 걸어서 나가면 대서양이 바다다 보이는 바닷가가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이민 초기에 너무나 피곤하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바닷물을 바라만 보고 물속에는 한 번도 몸을 담그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미국 사람들이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수영과 썬탠을 즐길 때에도 나는 일하느라고, 영어 공부하느라고, 두고 온 한국을 그리워하느라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느라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20대 후반에 미국에 와서 이제는 50대의 마지막 후반으로 접어드는 나이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살았던 세월보다 미국에서 살아온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창세기 32:10)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에 와서 잠시 살던 그곳 브라이튼 비치를 2년 전에 가보았습니다. 낡은 그 아파트와 전철과 푸른 바다와 노란색갈의 모래와 수평선은 여전하였습니다. 바뀐 것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사람들만 오고 가고 새로운 이민자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도 그곳을 떠난지 매우 오래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장소를 가면 그 장소와 연결된 수많은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년 전에 그곳을 찾아갔을 때 나는 잊혀졌던 이민 초기의 것 들이 생생하게 머리 속에서 다시 영화의 장면처럼 떠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길에서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이민을 왔던 형제들과

나의 가족들, 그리고 전철 아래에 있던 야채가게와 그 곳에서 일하던 한국 사람들, 그리고 몇 블럭 위로 걸어가면 지금도 그대로 있는 두 달 간 살던 이층집, 그 이층집에서 살던 어느 날 일 층으로 갑자기 들어온 중국 음식점, 그 중국 음식점 때문에 밤낮으로 구역질이 나게 냄새를 맡아야 했던 중국 음식 냄새와 기름타는 냄새,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들, 맨하탄에 나와서 일과를 마치고 지루하게 졸면서 타고 가던 느린 전철,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고생 하던 일, 처음 뉴욕의 운전 면허증을 받았을 때에 아버지가 이집 저 집 다니며 자랑하시던 일, 그리고 그 밖에 말 못할 여러 가지 이민자의 고통스러운 일들...

왜 사는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왜 미국으로 왔는가? 그리고 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아마 그런 질문을 할 여유조차 없이 지금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이민을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서 살고 있고, 앞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인 필립 안시라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1997년에 썼습니다. 나 역시 비슷한 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여! 아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 2014년 가을 학기 신입(편입)생 모집요강

KPCA,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NY)

2014년 가을학기 전형일 : 2014년 8월 28일

본 신학대학은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가 직영하는 학교로서 1978년에 설립하여 지금까지 35년간 수많은 목회자, 선교사, 교수 등 훌륭한 영적지도자를 양성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학대학입니다. 본 대학 교역학석사(M.Div.) 과정을 졸업한 분은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고, PCUSA 교단에서도 목회와 선교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군 군목으로도 활동하실 수 있고, 한국에 가실 경우에는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주안교회 등이 속해 있는 장로교 통합측 교단에 이명하여 목회할 수 있습니다. 본교와 Blanton-Peale Institute와 상호교육협정을 체결함으로 I-20Form을 발행하여 면학에 열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집학과	신학사 (B.Th.) 교역학석사 (M.Div.) 신학석사 (Th.M.)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신앙고백서, 이력서, 서약서 각 1통씩, 추천서 (B.Th는 담임목사, M.Div는 노회장), 전형료 \$50. * 서류는 본교 홈페이지(http://www.nypts.org)에서 다운로드
입학전형일시	2014년 8월 28일(목) 오전 10시 본교 사무실 주소: 277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
전형과목	성경, 영어, 일반상식, 면접.
개강일	2014년 9월 2일(화) 오전 9시 본교 강의실 주소 : 370 Demarest Ave., Closter, NJ 07624
강의시간	화요일, 목요일 (오전 9시~ 오후 7시 50분)
원서교부	본교 사무실 : 277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 전화 : 201-660-7778 Fax : 201-660-7779 홈페이지 : http://www.nypts.org
상담문의	학 감 : 이기백 목사 732-266-9013 총무처장 : 임선순 목사 917-754-5220, 718-921-3277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 교수소개



학장 유재도 교수
(기독교 교육)



학감 이기백 교수
(실천신학)



총무처장 임선순 교수
(역사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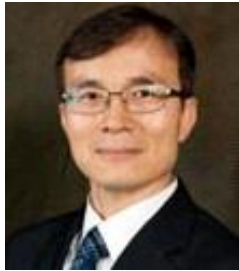
김건철 교수
(선교신학)



김삼천 교수
(구약신학)



김유태 교수
(신약신학)



김윤권 교수
(구약신학)



김종훈 교수
(실천신학)



김희건 교수
(조직신학)



박용범 교수
(기독교 윤리)



소기범 교수
(영성신학)



손안젤라 교수
(상담신학)



전광성 교수
(구약신학)



백성철 교수
(아비장 분교)

김건철 교수	Boston University (Th.D. can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Th.M.) 영남대(B.A.)
김삼천 교수	Canada Christian College(D.Min.)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숭실대(B.A.)
김유태 교수	Drew University (Ph.D.) 장로회신학대학원 (M.Div.) 연세대 (B.A.)
김윤권 교수	장로회신학대학원(Th.D cand. M.Div.) 연세대(Th.M. B.A.)
김종훈 교수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D. Min.)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M.Div.) 계명대 (B.A.)
김희건 교수	Drew University (Ph.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서울대(B.A.)
박용범 교수	Boston University (Th.D can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서울대(B.A.)
소기범 교수	Chicago Theological Seminary(Ph.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숭실대(B.A.)
손안젤라 교수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h.D., Th.M., M.Div.) Drew 신학교수
유재도 교수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Mi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Th.M) New Brunswick Seminary(M.Div.) 장신대 (B.Th.)
이기백 교수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D.Min.)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계명대(B.A.)
임선순 교수	뉴욕장로회신학대원 (Th.M., M.Div.) 연세행정대학원(M.P.A), 성균관대 (B.A.)
전광성 교수	영국 St. Andrew University(Ph.D.) New Brunswick Seminary(M.Div.). 연세대(B.A.)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할 것인가?”



김종훈 교수
 뉴욕장신 실천신학 교수
 뉴욕 예일장로교회 담임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D. Min.)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M.Div.)
 계명대 (B.A.)

(이 글은 필자가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에서 D.Min. 논문으로 제출한 “Communication Theory of C. Ellis Nels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American Church”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풀어 쓴 것임을 밝혀둔다.)

필자는 1982년 1월에 뉴욕으로 이민 와서 죽 이민교회 교육부서에서 일해 왔다.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우리의 자녀들이 이민교회에 머무는 수가 약 20%정도 밖에 안 되었으며, 나머지 80%는 조용한 출애굽(Silent Exodus)을 통해 말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있었다.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뒤면 이민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1.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마침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의 주류 교단인 미국장로교, 미국 감리교, 그리고 성공회 교회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C. Ellis Nelson의 책 “Where Faith Begins”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는 미국 주류교단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1) 개인주의(Individualism)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의무와 책임이 있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롬 12:4-5). 그리고 신앙의 의미는 이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 전달된다. 그런데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은 서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섬김을 교회에서 모두 빼앗아가 버렸다.

2) 신앙전수의 매체(Agent)로서 장년들의 정지된 영적 성장

교회 장년들의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는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변하는 세대 속에서 창조적으로 해석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무능함을 나타내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장년들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도맡아 하니 자녀들이 교회로부터 신앙과 삶에 대한 의미와 비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자신들의 관심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가슴 아픈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3) 사건들(Events)을 사용하여 신앙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의 실패

자녀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어른들이 어떻게 다루느냐를 보면서 신앙을 배운다. 예배와 성경공부 속에서 배운 진리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가를 보고 신앙의 의미를 배우게 된다. 이것이 자라나는 세대의 신앙의 정체성(Identity)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장년과 자녀들, 그리고 담임목회자와 청소년 지도자들 간에 함께 나누는 이벤트가 없다. 서로 너무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너무 생활과 분리되어 있다.

2. 이민 1세들의 문화적 배경과 그 결과로부터 오는 특징

넬슨의 지적이 우리 이민 교회 형편에도 적용되는 이유를 문화적인 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1) 샤머니즘(Shamanism) - 샤머니즘은 한국의 고대 토속 종교로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나 영이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종교이다. 샤만(Shaman) 즉, 무당이나 박수가 이 영적인 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곳을 통해 인간의 불행을 행복으로 전환시킨다고 믿는다. 이 원시종교에서는 곳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이나 윤리가 필요 없다. 무당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샤머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다. 이런 문화적인 특징 속에서는 장년들은 영적성장이나 윤리적 삶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자신의 당장 눈앞의 불행을 벗어나는

수단으로 목회자에게 수준 높은 기대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

2) 도교(Taoism) - 중국에서 7세기경 한국으로 들어온 도교는 인내, 단순하고 만족한 생활, 조화로운 생활을 윤리적 근간으로 한다. 또, 다신 숭배를 하는 도교는 샤머니즘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정령신앙의 자연관을 가지게 되었다. 도교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복과 장수의 추구이다. 이런 사상은 지금까지도 한국 문화에 그대로 내려와서 숫가락, 젓가락, 이불, 베개 등에 "수(longevity)" 나 "복(blessing)"자를 새겨 놓는 것으로 남아있다. 특히 외세의 침입을 자주 당한 한국인의 마음에 이런 사상은 복, 번영, 힘, 특권에 대한 강한 야망을 심어 주었다. 문제는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추구하는 신앙의 오류를 가져오게 되었다.

3) 유교(Confucianism) - 이조시대의 정신적인 근간을 이룬 유교는 근본적으로 종속(수직)의 개념이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는 충, 효 사상이 강하며, 가족 간의 유대와 친구와의 우정이 중요시된다. 예절, 의식 등에 강조를 두며 학문의 수양이 정부의 공적인 위치에 서게 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 유교의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계급주의(사, 농, 공, 상), 권위주의, 체면(face)과 위치(position)문화, 가문간의 싸움, 또는 분파주의(당파싸움)일 것이다. 사고방식의 정체성(stagnancy)과 완고함(rigidity)이 종종 의견충돌과 교회 분란의 원인 뿐 아니라, 1세와 2세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

4) 불교(Buddhism) - 불교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욕망으로부터 해탈을 통한 개인 구원에 강조점을 둔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통해 세속적 욕망을 벗어나고 열반에 이르도록 가르친다. 이런 불교의 영향에서 자란 사람들은 고통을 잘 참고, 자신의 수양을 통해 고난을 잘 극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개인 구원(personal salvation)을 강조하는 경향은 종종 자기 교회, 자기 교단의 관심 속에 빠져 사회와 세계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열의와 힘의 부족현상으로 나타난다.

3. 신앙 전수의 모델 두 가지

1) 부모의 신앙전수 모델

신명기 6장은 부모에게 주신 자녀교육의 교본이다.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부모가 언제나 어디서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계속 신앙으로 성장해야 한다. 성장하지 않고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의 의미를 전달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업이나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다고 핑계해서는 안 된다. 교회학교에 맡겨 놓았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된다. 자녀들의 신앙전수의 일차 책임은 부모이다.

필자는 이 일을 위해 개척 초기부터 장년 교육의 일환으로 제자훈련을 시켜왔다. 지속적인 성도들의 영적성장이 교회 성장의 힘이고,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전수의 기틀인 것을 체험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의미는 내가 지금 이민자로서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 미국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Kingdom Dream)을 위해 사는 디아스포라라는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산다는 의미를 심어줘야 한다. 꿈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이다(잠 29:18).

2) 비움(de-centering)과 재구성(re-centering)을 통한 신앙전수 모델

비움과 재구성을 통한 신앙전수의 모델은 빌립보서 2장의 주님의 성육신에서 배운 모델이다. 우리는 한국에서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미국에도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 걸치레 보다는 내면의 실재를 중시하는 사고방식, 약자에 대한 인격 존중 등은 참 배울 점이 많다. 그러나 미국적 사고방식에도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 개인주의/이기주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기준 상실 등이다. 좋지 않은 것은 비우고(de-centering)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는 1세와 2세가 함께 순종해 새로운 정체감으로 재구성(re-centering)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비전이여야 한다. 교회가 이 비전을 심어주어야 희망이 있다.

필자의 교회에서 이 비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 가지 예로 2000년도부터 매년 1세와 2세가 함께 하는 단기선교를 진행하고 있다. 장년들과 학생들을 함께 섞어서 조를 편성한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QT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를 이끄는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 온 저녁에는 영적 일기(Spiritual Journal)를 쓰고 서로 나눈다. 많은 격려가 이 때 나누어진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서 순수한 열정을 배우고, 자녀들은 부모들에게서 신앙의 성숙함과 사랑과 기도의 후원을 받는다. 이것이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게 하며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삶의 목표가 정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 특히 의료사역을 통하여 도전 받은 학생들 중에 이미 여러 명의 의사와 약사가 나왔다. 그들은 시간을 내어 단기선교를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영적 치료와 함께 육신의 치료를 베풀 것을 꿈꾸고 있다.♠



김희건 교수
 뉴욕장신 조직신학 교수
 Drew University (Ph.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서울대(B.A.)

종말론 소고:

“온 이스라엘의 종말적 구원은 사실인가?”

종말론에 관한 여러 책을 썼던 Richard Bauckham은 종말론을 가리켜 "imaginative picturing of the unimaginable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여 그리는 것)"이라 표현한다. Richard Bauckham, "Must Christian Eschatology Be Millenarian? A Response to Jurgen Moltmann," *Eschatology in Bible & Theology*, ed. Kent E. Brower & Mark W. Elliott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7), 277. 기독교 신학에서 유독 통일된 해석을 찾기 어려운 분야가 종말론이다. 자칫 종말론은 성경 본문을 자기 상상대로 해석하고 하늘에 그리는 그림이 될 수 있다. 그런 어려운 점을 아는 사람이라면, 종말론에 대해 무슨 언급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종말론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해석의 방법론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수준의 계시인가? 아니면, 신약의 계시 속에서 구약을 해석해야 하는가? 성경 무오설을 지지하는 한국 교회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수용하는 전통을 이어 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시대와 상황 속에서 발전하여 신약의 계시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구약과 신약을 동일선에서 수용할 때 체계적, 통일적 해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항상 신약을 기준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의 방법이라 믿는다.

일례로, 구약의 음식에 관한 규례 (레 11장)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마 15: 11),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딤후: 4-5)에 의하여 새롭게 해석되어, 정결, 부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음식을 먹게 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종말론과 관련하여 항상 논쟁이 되는 것은, 문자적 천년 왕국의 실재 여부 (전천년설, 또는 무천년설의 적용), 문자적 천년 왕국에 있어 세대주의적인 천년 왕국과 역사적 천년 왕국의 논란,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적 회복과 종말적 사역, 이스라엘의 존귀 여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종교 개혁자들은 천년왕국을 "유대인의 꿈"이라 하여 무시하였다. Jurgen Moltmann, *The Coming of God*, trans.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7. 그러나 이스라엘과 관련한 구약의 예언에 무게를 두는 사람이라면, 그 성취의 장으로 문자적 천년 왕국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해석의 틀과 체계로 본문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체계가 다르면 자연히 해석이 달라 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근래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의 특별한 위상을 주장하는 것이나, 이스라엘의 회복이 종말의 선(先) 징조라거나, 주님의 재림에 앞서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적으로 회개하고 옛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 주장하는 교회 또는 선교 단체들의 활동을 들으면서, 과연 그런 주장과 운동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타당한 근

거를 갖고 있는지? 다시 묻게 된다. Social network의 발달로, 지식이 쉽게 전파되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학문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전파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생각된다. 목회자들이 어떤 소견을 갖게 되면 그들을 따르는 교인들은 자연스레 그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정말 책임적이고 올바른 성서적, 신학적 이해를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다시 언급하고 싶은 사실은, 종말론은 통일된 해석이 쉽지 않은 것임을 알아 조심스럽게 접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개하는 내용도 어떤 이들에게는 생소한 의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본 글을 통해 취급하려는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말의 때에 전 민족적으로 회심할 것인가? 과연 유대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인가?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회심이 주님의 재림의 조건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근래 이런 주장을 하는 선교 단체나 교회가 있어 적지 않은 교인들도 그것을 사실로 믿는 것 같다. 그렇게 믿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하나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롬11: 26)는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말적 회복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열방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특별한 위상을 믿고, 그 종말적 존귀, 민족적 구원을 믿고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유대) 백성이 다른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 있으며, 언젠가 미래 역사 속에 성취를 기다리는 구약의 예언을 배경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이나, 독특성(특별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신약 성서 전반의 말씀에 의해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말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마8:11-12),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21: 43),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종말적 회복을 지지하는 대신, 그들의 역사적 특권과 지위의 상실을 예언하는 말씀이 분명하다. 또한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성령 강림 이후,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롬10: 12, 갈3: 28-29, 5:6, 엡2: 19, 골3: 11참고). 더 나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한다 (갈3: 9). 이상, 몇몇 신약 성경의 증거에서 보는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가 주어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유대인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구원이 약속되었음을 읽게 된다 (행4: 12).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역사의 종말에 민족적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다고 믿는 사람들과,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처럼, 유대인들은 복음과 별도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해 종말적, 민족적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구별된다. Ibid., 198. "Just as Saul the rabbi became Paul the apostle by seeing Christ, so all Israel will one day be redeemed through the seeing of the Christ of the parousia (랍비였던 사울이 그리스도를 봄으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이 장차 재림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속을 받게 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로마서 본문 말씀이 과연 종말의 때에 유대인들의 민족적 회개와 구원을 의미하는 말씀인가? 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본문 이전의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을 전개함에 Lloyd-Jones의 책 "The Church and the Last Things (교회와 종말 사건)"속의 유대인 관련 자료를 참고 하였음을 밝힌다. Martyn Lloyd-Jones, *The Church and the Last Things* (Wheaton: Crossway Books, 1998), 105-113.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의해 끝까지 보존된다고 증거한다(롬 8:31-39).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왜 버림을 받았는가? 로마서 9장 이후는 그 대답을 제공하고 있다. 로마서

9-11장의 설명에 의하면, 혈통에 의한(육신적) 이스라엘 백성이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롬9: 6-7),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 (9:8), 택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증거한다" (9: 11). "또 이스라엘 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9: 27).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자가 되었으나 (10: 3),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 (10: 12, 13).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 약속을 믿는 백성, "남은 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롬11: 26,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본문은 종말의 때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한꺼번에 구원에 이른다는 뜻이 아니라, 종말에 앞서 "이방인들의 총만한 수가"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모든 세대에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여, 모두 구원에 이른다는 말로 해석되는 것이다. Ibid., 111-112. 물론 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의한 부르심을 의미한다. 그 다음 본문 (롬 11: 26-27), 이사야서의 인용,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는 예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초림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스라엘의 종말적 회복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인용된 말씀이 장차 있을 미래적 사건으로 해석할 것이다.

구약의 예언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것이 행 15: 16-18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구약 아모스 9: 11-12을 인용한 말씀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 예언을 교회의 설립과, 유대인,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로 연결시켜 해석하고 있다. 구약 아모스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암9: 13-15)은 장차 유대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이 분명하다. 그러나 야고보는 아모스의 예언을 해석하여 이르기, 그 예언은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의 민족적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설립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 이방인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그 성취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해석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은 교회의 설립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완성되며, 유대인, 이방인을 초월해서 예수의 복음을 통해 택한 백성을 교회로 부르시는 사역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주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말로 해석하게 된다.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유대) 백성 중에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로마서 8장 후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말씀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Lloyd-Jones, *The Church and the Last Things*, 112.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불드시는 분이심을 증거한다.

복음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대상으로, 복음과 달리 구약의 언약의 전통 속에서 전 민족적으로 회복이 있으리라 주장하는 몰트만과 같은 사람도 있고, 로이드 존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이후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Ibid., 110. 그는 상계서에서 "It seems to me, therefore, that there is no special place for the Jews, as a nation; it is impossible"라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유대인들이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주장을 단호하게 부인한다. 더 나아가 차별의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했던 자리를 신약의 교회가 대신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소위, 대체 신학의 입장). 이런 차이는 서두에서 언급한대로 구약과 신약을 어떤 관점에서 읽는가?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덧붙여, 종말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리라는 주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약의 제사제도가 무효화된 점과 신약의 여러 증거를 토대로 볼 때 (특히 히 10: 9-18절 참고), 무용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졸업을 앞두고”



이정희(M.Div)

참 세월이 빠른것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2010년 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이제는 논문을 쓰면서 이 글을 씁니다. 지금은 학교가 뉴저지로 이사를 왔지만, 제가 처음 학교를 다닐 때는 뉴욕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고소 공포증으로 혼자 운전해서 다리를 건너가는 것을 무서워했던 제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학교에 가기 위해 퀸즈보로브릿지를 건너야 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다리를 건너 갈 때까지 1시간이 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학교를 어렵게 다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찾아 오셔서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나와 같이 하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건으로, 어려서 이후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소 공포증이 사라졌습니다. 영성시간에 나의 이야기를 학생들이 알게 되었고, 계기가 되어서 뉴저지에서 다니는 5명의 학생들이 같이 카풀을 하면서 각자 새벽기도를 마치고 7시에 모여서 학교를 오고 가면서 서로에 대한 비전과 소망도 알게 되었고 어려움과 아픔도 알게 되었습니다. 일가친척 하나없는 이국 땅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우리들은 학우애를 넘어서 서로의 아픔과 기쁨이 공유가 되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뜨겁게 기도해주는 위로자이며, 형제이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들이 있었기에 학생들 모두가 정말 정말 열심히 공부에 임했습니다.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밀고 끌어 주던 사랑하는 학우들이 있었기에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또한, 적은 수의 학생들을 가르치시지만 10명의 교수님들이 열심을 다해 수업을 가르치시는데, 저희 학생들은 매 수업시간마다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특별히 보스톤에서 오시는 몇 분의 교수님은 새벽에 나오셔서 3시간 수업을 하시고 밤늦게 보스톤으로 올라가시는데, 너무도 기쁘고 행복하게 수업을 준비해 주시고 열심을 다해 가르치셨습니다. 피곤하신 줄도 모르시고 강의에 임하시는 교수님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감동을 받아 시간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수업을 받던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저희들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예배를 마치고 7시에 모여 학교를 가서 밤9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신이 났습니다. 비록 학교의 환경은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너무나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는 학교라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각 노회에서 열어 주는 수련회는 우리 학생들에게 공동체의 하나됨을 알게 해주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역의 어려움이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내어 놓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는 일들, 밤을 새워가며 서로의 이야기 속에 빠져 웃고 울던 일들은 어디에서도 맛 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에서 공부를 하였기에 저에 잃어버렸던 자존감도 높아졌고,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제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 회복되어서 지금은 이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철 목사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전도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지만 좋은 신학교에 인도되었고 훌륭한 교수님들에게 지식과 함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치유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박대호(M.Div)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제 그만 두어야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는데, 내가 꿈꾸며,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27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어린 나이에 내 앞날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적이 있다. 가장 보람되며,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가장 기쁜 삶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 가운데, 많은 직업 군들이 내 머리를 지나갔다. 보람될 만한 일은 많았다. 나를 기쁘게 할 삶도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내가 더욱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 자신도 보람되며, 기쁜 삶의 결론은 목회자였다.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였다.

이런 결정을 내린 뒤로 지금까지 앞의 질문들을 해 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장신에 진학하였다. 바로 찬양 사역자로, 또 전도사로 사역하고, 열심을 냈다. 목회자가 되는 길이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전도사로 사역한지 20년이 흘렀다. 나의 대학 친한 동기들, 후배들중 목회자가 되기 위해 결단한 친구들은 벌써 담임목사로 부교역자로, 목회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바로 섬기고 있다. 나의 대학은 길어졌고,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한 후 신대원 진학은 더욱 미뤄졌다. 주변의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고, 나 스스로도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지? 나의 착각은 아니었나?” 이제 주변의 시선이 마치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듯 보였다.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요셉을 향해, 비웃으며, 말하던 그 형들의 모습처럼 사단은 나를 비웃었다. 요셉이 다가오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하며 공모했던 형들처럼 나의 삶이 나의 꿈을 조여 왔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 또 세 아이의 아버지로, 나이 들어 이제 늙어가는 부모님의 장남으로 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까지 갔는지 모르겠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르우벤을 요셉을 위해 예비하셨듯, 한 집사님을 보내주셨다. 한 신문의 작은 광고를 집사님 한 분이 들고 왔다. 아주 작은 지면의 광고를 고이 잘라 나에게 보여주셨을 때만해도 난 반신반의 했다. 내가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사역하던 교회는 내가 공부하고 자라왔던 통합 교단이 아니었다. (그 동안 왜 이 뉴욕에는 통합 측 목사님들이 안 계시나? 하는 의문만 가지고, KPCA 교단에 대해 잘 몰랐다.) 그리고, 처음 찾았던 학교의 모습은 학교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뉴욕 장신이 KPCA에 소속된 총회 직영 학교이며, 한국의 통합과 연계된 학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흥분이 느껴졌다. 그 뿐만 아니라, 학교의 수업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며, 또 함께 서로의 아픔을 위해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 주며 도와주는 학우들과의 만남은 나의 선입견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제 벌써 M.Div 마지막 학기에 접어들었다. 이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옆에서, 그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학우, 기도해 주는 학우, 또 조연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셨던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3년의 기간을 다 채워가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우면서, 그 동안 가졌던 앞의 의심의 질문은 던져 버리기로 했다. 수업 중 한 교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의 끝자락이라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하셨던 말씀 속에서 내 앞에 많은 기적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뉴욕 장신은 이렇듯,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장소이다. 나는 오늘도 좋은 학교, 좋은 교수님들, 좋은 학우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꿈을 붙들고, 그 꿈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쫓아가게 되기를 기도한다.♠

제 31 회 졸업생 소개

M.Div.(목회학 석사)



구정모



김현미



박대호



이경세



이정희



정신범



현윤이

B.Th.(신학 학사)



오영숙



김진의



김태정



김평일



오길순



오보양

2014년 뉴욕 장신대 수련회 보고(KPCA 뉴저지 노회주관, 3월 25일)

2014년 봄수련회가 3월 25일 뉴저지 노회 주관으로 뉴저지하베스트 교회에서 진행되었다. 학장님 이하 교수님들과 뉴저지 노회 목사님들 그리고 재학생들과 졸업생이 참석하였다. 노회장 김홍채 목사님의 인도로 시편 91:14~16을 통해서 "말씀선포하는 자들은 말씀선포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했다.

예배 후 정철 목사님(직전노회장)이 '개인 소명 선언서'라는 주제로 1교시 강의에서 목회에 CALLING 과 MISSION은 균형을 이뤄야하고 자기결단(소명)이 구체적인 그림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전했다. '경험이 많은 사람'보다 '준비가 많은 사람'이 중요하며, 또한 짧은 시간이지만 강의 끝부분에는 각자 '소명선언서'를 생각하며 간략하게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2교시에는 조인목 목사님이 예배, 교회 그리고 사회에 대한 정의와 목적 그리고 감당해야 할 일에 대해 강의되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교회를 단순히 교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민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질문과 열린 토론은 강의시간을 20분이나 지나서야 끝나게 되었다.

강신균 목사님이 준비해주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되었습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사람 즉 나로 부터라는 시각과 책임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강의시간에는 정창문 목사님이 '영혼의 어두운 밤(THE DARK NIGHT OF THE SOUL)을 지나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되었다. 결론적으로 '영혼의 어두운 밤'은 영적 메마름과 공허와 하나님의 부재라는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집착과 중독이라는 우상을 제거하는 영적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2014년 봄학기 수련회를 준비해주신 뉴저지노회 노회장님과 노회 목사님들과 노회소속 목사님 그리고 학장님과 교수님들께 뉴욕장신대 학생회 모든 학생들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시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뉴욕 장신대학(원) 후원 안내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은 학교 발전 기금과 학교 건축 기금 두 가지 기금을 모읍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의 기도와 동참을 바랍니다. "Pay to the order of N Y P T S "

학교 발전기금

번호	헌금하신 분	금 액	헌금일자	비 고
1	송병기 목사	5,000.00	6-16-13	전 학장 (이사회 입금)
2	최문병 목사	3,000.00	6-16-13	전 학감
3	무 명	5,000.00	11-30-13	장학기금
4	무 명	3,500.00	2-28-14	장학기금

학교 건축기금

번호	헌금하신 분	금 액	헌금일자	비 고
1	Ran S. Cho	500.00	8-22-13	
2	Daniel D. Kim, D.D.S.	5,000.00	8-28-13	DANIEL D. KIM, D.D.S. LLC
3	First K. Plumming LLC	300.00	10-9-13	FIRST K. PLUMMING LLC
4	Jay Do Yu	2,000.00	10-17-13	학장 가정
5	장가원 장로	500.00	11-3-13	아틀란타
6	최경애 권사	300.00	10-10-13	
7	장경희 권사	100.00	11-14-13	
8	한보현	200.00	11-24-13	
9	이종순	200.00	11-24-13	
10	이성국 목사	100.00	12-10-13	
11	유한나 변호사	1,000.00	1-3-14	유한나 변호사
12	이교현 장로	1,000.00	2-25-14	서울
13	유재도 학장	2,000.00	2-25-14	
14	유희욱 권사	1,000.00	4-1-14	

※ 신학교 발전 및 건축 기금을 위해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욕 장신 뉴스레터” 발행인 : 학장 유재도 / 편집장: 학감 이기백 / 편집차장 : 총무처장 임선순
 뉴욕 장신 뉴스레터는 일년에 4번 발행됩니다.